

노인관련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의 노인인식

신 미 자¹

¹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본 연구는 2011년도 안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함.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nsan University in 2011.

Perception About the Elderl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terested in the Elderly Care Business

Shin, Mi-Ja¹

¹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주요어

창업, 인식, 노인, 대학생

Key words

Business, Perception, Elderly, Undergraduate student

Correspondence

Shin, Mi-Ja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752, IL-dong, Sangnok-gu,
Ansan, Kyonggi-do, Korea
Tel: 82-31- 400-6928
Fax: 82-31-400-7107
Email: mjshin@ansan.ac.kr

투 고 일: 2011년 12월 12일
수 정 일: 2011년 12월 23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4일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 about the elderl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terested in the elderly care business. **Method:** In this descriptive research, a total of 183 undergraduate students were participated. The instrument was consisted of a 18-item semantic differential scale developed by Sanders et al (1984).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y SPSS 18.0. **Result:**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elderly was slightly positive(2.98 ± 1.51).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erception about the elderly were gender, age, present residing state with the elderly, experience of residing with the elderly at the past. Male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elderly was more positive than female. Among 18 items, 'wise' and 'knowledgeable' was highly related to the perception about the elderly($r=.671$, $p=.001$).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tems of optimistic, attractive, flexible and good were the impressive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for the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promote perception about the elderl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6년에는 9.5%로 6년 만에 노인 인구 비율이 2.3% 늘어나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9

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ational Statistics Office Republic of Korea, 2006).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아 인구분포의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표적인 고령화의 문제들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가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노인부양 부담감을 증가시키고(Lee et al., 2003), 세대 간의 갈등과 오해의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

이 따르게 된다(Han, 2000).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 연구는 향후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차세대가 노인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Kim, Kang, & Lee, 2004). 선행 연구에서 연령군 별 노인에 대한 태도는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이었다가 청년기에는 다소 불확실하나 비교적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성인기와 중년기에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었으며 노년기에는 부정적인 태도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1989).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청년기의 대학생들은 노인이 건강하지 못하고 의존적이며, 보수적이고 자기중심적·비생산적인 존재로 인식하였으며(Cha, 1980; Seo, & Kim, 1999), 노인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수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Uhlenberg & Hammill, 1998) 나타났다. 노인과 노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부정적 태도(Miko, 1987)는 물론, 노인 관련 교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 대학생들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rge, 2006).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형성은 그들을 둘러싼 문화와 개인적인 신념, 가치관 및 미디어의 영향이 있다. Traxler(1980)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형성 요인은 첫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인식, 둘째로 젊음의 신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지나친 강조, 셋째로 노인의 생산성 저하, 넷째로 노인이 지닌 장점과 건강함, 노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부족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인 인식을 갖도록 도와야 하며, 대학교육 과정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Lee et al., 2003; Cha, 2006). 현재의 대학생들은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정서적 노인부양을 담당해야 하는 중추적 집단이며(Lee, 2000) 그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6. 25전쟁 후 baby boom현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변화를 체험하고, 변화의 흐름을 함께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그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원만한 관계형성은 매우 중요한 것(Han, 2000; Lee, 2005)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관련 창업 분야를 대학생들이 인지하고 자신에게 흥미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노인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노인관련 사업에는 노인전용 물품이나 기구, 생활용품, 의료관련 기구 등 다양하다. 간호분야에서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간호사 창업코너'를 개설하고 있다(Jang et al., 2009). 현재 학과별 특성에 맞는 대학생 창

업이 제안되고 급부상되는 시기에 추천되는 사안이다.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대학생들의 노인인식이나 연령대별 비교, 도시와 농촌 대학생들의 노인인식 차이 등이었으며, 노인에 관심이 있거나 노인관련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노인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노인관련 창업을 시도하기 전에 대학생들의 노인인식 정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관련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인인식 정도와 내용을 확인하고 노인인식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노인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관련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노인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문항별 노인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항별 노인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노인인식 문항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관련 창업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인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소재 2개 대학의 6개 학과 대학생 200명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총 200부 설문지 중 20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100%였으며,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된 17부를 제외하고 183명(91%)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는 Sa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 (1984)이 개발한 것을 Han(2000)이 일부 수정한 것으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18개 문항의 설문지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측정되며 문항의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임을 의미하며 문항의 점수가 3.5-4.5점 범위이면 노인에 대한 인식이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2000)의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값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 .85였다.

4.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 절차는 연구자가 대학생들에게 노인관련 창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과 확대되고 있는 영역에 관해 설명한 후 노인관련 창업과 노인관련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학생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 보조자가 연구 대상자를 30~40명씩 만나 사전 설명한 후 기다려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노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정도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인식 정도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으며 노인 인식에 대한 문항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56.3%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19~20세가 37.2%로 가장 많고, 21~22세(27.3%), 23~25세(24%)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96.7%였으며, 조부모 생존자는 70.6%였다. 현재 조부모와 동거중인 대상자는 24.5%였으며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가 75.5%로 훨씬 높았다. 그러나 과거에 조부모와 동거 유경험자는 52.4%로 무경험자(45.5%)보다 높았으며, 조부모와의 긍정적인 유경험자는 56.8%로 무경험자보다 높았다. 대학 재학 중 노인관련 과목 수강자는 47.6%로 미수강자보다 약간 낮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80(43.7)
	Female	103(56.3)
Age (years)	19-20	68(37.2)
	21-22	50(27.3)
	23-25	44(24.0)
	over 26	21(11.5)
Marital status	Married	6(2.7)
	Single	177(96.7)
Survival of grandparent	Yes	132(70.6)
	No	51(27.3)
Present residing with elderly	Yes	36(24.5)
	No	111(75.5)
Experience of residing with elderly at the past	Yes	98(52.4)
	No	85(45.5)
Positive experiences with elderly	Yes	104(56.8)
	No	79(43.2)
Classed experience	Yes	89(47.6)
	No	94(50.3)

2. 대상자의 문항별 노인인식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문항 별 평균 평점이 2.98점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총 18개 문항 모두 긍정의 범위에 속하였다 (3.5~4.5점: 중립). 성별 차이는 남자 평균 2.72점, 여자 평균 3.18점으로 남자 대학생이 여대생보다 노인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었으며, 18개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이었다.

대상자가 노인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 문항은 '믿을 수 있다'(2.62)였으며 '친절하다'(2.62), '좋다' (2.69), '깨끗하다'(2.82) 순이었으며,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한 문항은 '불평이 없다'(3.45)이었으며 '적극적이다'(3.26), '독립적이다'(3.26), '유식하다'(3.20) 순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식 정도는 성별($t=-2.980$, $p=.003$), 연령($F=4.811$, $p=.003$), 조부모 동거($t=-2.437$, $p=.016$), 과거 조부모 동거($t=-1.975$, $p=.04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성별은 남자(2.72점)가 여자(3.18점)보다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으며, 조부모와 동거하는 군(2.56점)이 비동거군(3.05점)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조부모와 동거한 군(2.83점)이 비동거군(3.15점)보다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노인인식 정도에는 유의한

〈Table 2〉 Degree of Perception about Elderly According to the Items (N=183)

Item	Male M±SD	Female M±SD	Rank	Average M±SD
Wise	2,78±1,53	3,04±1,22	8	2,92±1,37
Kind	2,38±1,52	2,81±1,36	2	2,62±1,45
Knowledgeable	3,10±1,40	3,27±1,23	15	3,20±1,31
Trustworthy	2,18±1,21	2,97±1,50	1	2,62±1,43
Generous	2,51±1,42	3,26±1,42	9	2,93±1,47
Neat	2,61±1,35	2,99±1,43	4	2,82±1,41
Active	3,04±1,69	3,43±1,47	17	3,26±1,58
Friendly	2,50±1,43	3,15±1,21	6	2,86±1,34
Interesting	2,96±1,71	3,34±1,32	14	3,17±1,51
Healthy	2,54±1,66	3,17±1,62	7	2,90±1,66
Good	2,39±1,40	2,92±1,62	3	2,69±1,55
Flexible	2,81±1,66	3,07±1,46	10	2,96±1,55
Independent	2,84±1,52	3,59±1,47	16	3,26±1,53
Liberal	2,78±1,48	3,34±1,37	13	3,09±1,44
Attractive	2,81±1,64	3,17±1,59	12	3,02±1,62
Tolerant	2,83±1,84	3,13±1,54	11	2,99±1,68
Optimistic	2,56±1,43	3,08±1,76	5	2,85±1,64
Uncomplaining	3,28±1,69	3,59±1,59	18	3,45±1,64
Average	2,72±1,54	3,18±1,46	18	2,98±1,5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811$, $p=.003$). 집단 간 Scheffe 검증한 결과 23~26세 집단과 26세 이상 집단이 19~20세 집단과 21~22세 집단보다 노인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대상자의 결혼상태, 조부모 생존, 노인과의 긍정적 경험, 노인관련 과목 수강 유무는 노인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항별 노인인식

문항별 노인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특성은 연령, 성별, 조부모 동거, 과거 조부모 동거, 결혼상태와 노인과의 긍정적 경험 순으로 다수의 문항에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4〉).

대상자의 연령은 노인 인식에 관한 총 18개 문항 중 가장 많은 11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e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3~25세 집단은 19~20세 집단보다 7개 문항인 '친절하다'($F=2.745$, $p<.05$), '믿을 수 있다'($F=4.143$, $p<.01$), '관대하다'($F=3.389$, $p<.01$), '적극적이다'($F=4.831$, $p<.01$), '진보적이다'($F=3.519$, $p<.01$), '매력적이다'($F=3.240$, $p<.01$), '참을성 있다'($F=2.706$, $p<.05$)에서 노인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25세 집단과 26세 이상 집단은 19~20세 집단보다 2개 문항인 '우호적이다'($F=4.119$, $p<.01$), '낙천적이다'($F=4.164$, $p<.01$)에서 노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25세 집단은 19~20세 집단이나 21~22세 집단보다 '건강하다' 문항($F=4.184$, $p<.01$)에서 노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23~25세 집단은 19~20세 집단이나 26세 이상 집단보다 '깨끗하다' 문항($F=3.685$, $p<.05$)에서 노인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의 연령군은 23~25세 집단이 타 연령군보다 유의

〈Table 3〉 Degree of Perception about Elderl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SD	t or F	p
Gender	Male	2,72±1,06	-2,980	.003**
	Female	3,18±1,01		
Age (years)	19-20 a	3,32±.92	4,811	.003** a,b>c,d
	21-22 b	2,94±.94		
	23-25 c	2,59±1,18		
	over 26 d	2,80±1,15		
Marital status	Married	2,42±1,82	-.705	.519
	Single	2,99±1,03		
Survival of grandparent	Yes	2,91±1,04	-1,490	.138
	No	3,17±1,09		
Present residing with elderly	Yes	2,56±.94	-2,437	.016*
	No	3,05±1,04		
Experience of residing with elderly at the past	Yes	2,83±1,04	-1,975	.048*
	No	3,15±1,05		
Positive experiences with elderly	Yes	2,98±1,08	-.029	.977
	No	2,98±1,03		
Classed experience	Yes	2,96±1,04	-.193	.847
	No	2,99±1,07		

* $p<.05$, ** $p<.01$, a,b,c,d ; Scheffe

〈Table 4〉 Degree of Item Perception about Elderl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Wise		Kind		Knowledgeable		Trustworthy		Generous		Neat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Gender	Male	2,78±1,53	-1,293	2,38±1,52	-2,010 [*]	3,10±1,40	-,877	2,18±1,21	-3,955 ^{**}	2,51±1,42	-3,556 ^{**}	2,61±1,35	-1,839
	Female	3,04±1,22		2,81±1,36		3,27±1,23		2,97±1,50		3,26±1,42		2,99±1,43	
Age(years)	19-20 a	3,16±1,22	1,739	2,91±1,46	2,745 [*] c<a	3,44±1,00	2,112	3,01±1,42	4,143 ^{**} c<a	3,31±1,42	3,389 [*] c<a	3,03±1,34	3,685 [*] c<a,d
	21-22 b	2,98±1,33		2,70±1,22		3,24±1,25		2,64±1,40		2,94±1,36		2,90±1,27	
	23-25 c	2,68±1,69		2,16±1,63		3,02±1,69		2,09±1,38		2,47±1,52		2,26±1,37	
	over 26 d	2,57±1,54		2,48±1,33		2,71±1,06		2,48±1,40		2,71±1,55		3,19±1,75	
Marital status	Married	2,00±1,41	-1,554	2,20±1,64	-,666	1,60±,89	-2,843 ^{**}	2,00±1,41	-,997	2,80±2,49	-,131	2,80±2,49	-,030
	Single	2,96±1,36		2,64±1,44		3,25±1,29		2,65±1,43		2,95±1,44		2,83±1,37	
Survival of grandparent	Yes	2,83±1,40	-1,496	2,55±1,42	-1,024	3,09±1,36	-1,826	2,57±1,47	-,886	2,92±1,46	-,334	2,75±1,37	-1,236
	No	3,18±1,26		2,80±1,51		3,49±1,16		2,78±1,33		3,00±1,50		3,04±1,50	
Present residing with elderly	Yes	2,66±1,49	-1,294	2,11±1,21	-2,161 [*]	2,83±1,54	-1,603	2,20±1,45	-1,664	2,54±1,27	-1,577	2,49±1,29	-1,479
	No	2,92±1,36		2,72±1,47		3,20±1,28		2,71±1,47		3,05±1,52		2,86±1,39	
Experience of residing with elderly at the past	Yes	2,72±1,39	-2,128 [*]	2,40±1,38	-2,223 [*]	3,11±1,36	-,933	2,53±1,54	-,943	2,76±1,50	-1,754	2,70±1,37	-1,220
	No	3,16±1,31		2,88±1,48		3,31±1,25		2,74±1,30		3,15±1,41		2,97±1,44	
Positive experiences with elderly	Yes	2,74±1,37	-2,147 [*]	2,57±1,41	-,587	3,19±1,32	-,109	2,60±1,46	-,340	2,89±1,49	-,496	2,96±1,44	1,430
	No	3,18±1,34		2,70±1,51		3,22±1,32		2,67±1,41		3,00±1,45		2,66±1,36	
Classed experience	Yes	2,91±1,38	-,128	2,66±1,35	,411	3,12±1,27	-,731	2,67±1,45	,468	2,89±1,42	-,393	2,96±1,50	1,240
	No	2,95±1,36		2,59±1,54		3,28±1,36		2,59±1,42		2,98±1,51		2,71±1,31	

^{*} p<.05, ^{**} p<.01, a, b, c, d; Scheffe

⟨Table 4⟩ Degree of Item Perception about Elderly by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18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ctive		Friendly		Interesting		Healthy		Good		Flexible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Gender	Male	3,04±1,69	-1,659	2,50±1,43	-3,298**	2,96±1,71	-1,681	2,54±1,66	-2,604**	2,39±1,40	-2,321**	2,81±1,66	-1,104
	Female	3,43±1,47		3,15±1,21		3,34±1,32		3,17±1,62		2,92±1,62		3,07±1,46	
Age(years)	19-20	a	3,75±1,55	3,26±1,30	4,119**	3,37±1,28	1,716	3,27±1,66	4,184**	2,99±1,53	1,751	3,22±1,55	2,592
	21-22	b	3,20±1,43	2,82±1,16		3,32±1,46		3,06±1,61		2,68±1,52		2,88±1,53	
	23-25	c	2,66±1,57	2,43±1,45		2,77±1,74		2,20±1,58		2,36±1,59		2,77±1,55	
	Over 26	d	3,10±1,64	2,62±1,40		3,10±1,73		2,81±1,63		2,45±1,52		2,38±1,40	
Marital status	Married		2,80±2,04	2,40±1,94	-,797	3,00±2,34	-,182	2,80±2,16	-,145	2,40±1,94	-,431	1,80±1,30	-1,715
	Single		3,28±1,56	2,89±1,33		3,19±1,48		2,91±1,65		2,70±1,54		3,00±1,54	
Survival of grandparent	Yes		3,20±1,58	2,85±1,38	-,301	3,15±1,52	-,389	2,97±1,62	,909	2,67±1,55	-,268	2,89±1,57	-1,033
	No		3,43±1,57	2,92±1,26		3,25±1,51		2,73±1,79		2,75±1,56		3,16±1,50	
Present residing with elderly	Yes		2,80±1,39	2,57±1,24	-1,587	2,86±1,56	-1,537	2,66±1,51	-1,303	2,37±1,33	-1,403	2,57±1,33	-1,733
	No		3,36±1,62	2,97±1,41		3,28±1,48		3,10±1,64		2,80±1,61		3,02±1,63	
Experience of residing with elderly at the past	Yes		3,10±1,65	2,63±1,30	-2,511	3,04±1,57	-1,289	2,81±1,70	-,783	2,50±1,47	-1,701	2,85±1,57	-1,023
	No		3,47±1,48	3,14±1,36		3,34±1,44		3,01±1,63		2,91±1,62		3,09±1,52	
Positive experiences with elderly	Yes		3,28±1,70	2,79±1,32	-,917	3,23±1,62	,523	3,06±1,77	1,463	2,79±1,62	1,028	3,01±1,61	,484
	No		3,24±1,43	2,98±1,39		3,11±1,36		2,70±1,51		2,56±1,44		2,90±1,47	
Classed experience	Yes		3,01±1,47	2,82±1,27	-,420	3,15±1,53	-,250	3,09±1,70	1,534	2,79±1,50	,902	2,94±1,57	-,105
	No		3,50±1,64	2,91±1,42		3,21±1,50		2,72±1,62		2,60±1,59		2,98±1,54	

* p<.05, ** p<.01, a, b, c, d; Scheffe

〈Table 4〉 Degree of Item Perception about Elderly by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18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Independent		Liberal		Attractive		Tolerant		Optimistic		Ucomplaining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Gender	Male	2.84±1.52	-3.385**	2.78±1.48	-2.663**	2.81±1.64	-1.503	2.83±1.84	-1.201	2.56±1.43	-2.176*	3.28±1.69	-1.296
	Female	3.59±1.47		3.34±1.37		3.17±1.59		3.13±1.54		3.08±1.76		3.59±1.59	
Age(years)	19-20 a	3.57±1.42	1.917	3.49±1.35	3.519*	3.47±1.53	3.240*	3.38±1.67	2.706*	3.35±1.77	4.164**	3.71±1.65	1.239
	21-22 b	3.24±1.36		2.98±1.29		2.88±1.57		2.70±1.37		2.76±1.46		3.12±1.47	
	23-25 c	2.91±1.63		2.64±1.50		2.59±1.67		2.61±1.85		2.52±1.62		3.48±1.81	
	over 26 d	3.10±1.95		3.10±1.73		2.80±1.66		3.24±1.84		2.19±1.25		3.38±1.63	
Marital status	Married	2.60±1.81	-.997	2.40±1.94	-1.108	2.60±2.19	-.597	2.20±1.78	-1.086	2.40±1.94	-.637	2.80±2.16	-.922
	Single	3.29±1.52		3.12±1.42		3.04±1.60		3.03±1.67		2.88±1.63		3.49±1.62	
Survival of grandparent	Yes	3.18±1.48	-1.033	3.02±1.41	-1.228	2.97±1.56	-.676	2.83±1.52	-1.910*	2.70±1.56	-2.128*	3.29±1.57	-2.266*
	No	3.49±1.65		3.31±1.53		3.16±1.78		3.43±1.99		3.27±1.78		3.88±1.76	
Present residing with elderly	Yes	2.85±1.57	-3.013**	3.02±1.50	-2.078*	2.82±1.52	-2.289*	2.84±1.63	-1.278	2.60±1.66	-2.482*	3.52±1.71	-1.291
	No	3.09±1.52		3.19±1.38		3.26±1.70		3.19±1.72		3.15±1.58		3.38±1.57	
Experience of residing with elderly at the past	Yes	3.16±1.60	-.935	3.02±1.50	-.727	2.82±1.52	-1.801	2.84±1.63	-1.364	2.60±1.66	-2.235*	3.52±1.71	.589
	No	3.39±1.46		3.19±1.38		3.26±1.71		3.19±1.72		3.15±1.58		3.38±1.57	
Positive experiences with elderly	Yes	3.17±1.55	-.948	3.09±1.46	-.119	3.01±1.65	-.110	2.98±1.71	-.171	2.80±1.67	-.557	3.53±1.68	.755
	No	3.39±1.51		3.12±1.43		3.04±1.59		3.03±1.66		2.94±1.62		3.35±1.60	
Classed experience	Yes	3.20±1.66	-.513	3.10±1.45	.075	2.90±1.57	-.953	3.10±1.54	.832	2.82±1.62	-.257	3.29±1.58	-1.294
	No	3.33±1.41		3.10±1.44		3.14±1.66		2.90±1.81		2.89±1.67		3.61±1.69	

* p<.05, ** p<.01, a, b, c, d; Scheffe

〈Table 5〉 Correlation among Items Perception toward Elderly

Items \ Items	Wise	Kind	Knowledgeable	Trustworthy	Generous	Neat	Active	Friendly	Interesting	Healthy	Good	Flexible	Independent	Liberal	Attractive	Tolerant
Wise																
Kind	.597															
Knowledgeable	.671	.508														
Trustworthy	.508	.625	.486													
Generous	.485	.596	.503	.630												
Neat	.484	.603	.507	.621	.511											
Active	.430	.429	.531	.454	.473	.597										
Friendly	.465	.556	.451	.550	.570	.587	.625									
Interesting		.404		.422		.549	.639	.531								
Healthy				.415		.645	.525	.500	.562							
Good	.452	.446	.450	.588	.465	.496	.481	.545	.460	.510						
Flexible	.477	.445	.557	.515		.580	.615	.497	.534	.582	.633					
Independent			.427			.462	.524	.413	.516	.495	.431	.558				
Liberal			.448	.428		.582	.605	.535	.597	.565	.439	.597	.659			
Attractive		.432		.443		.653	.595	.513	.539	.542	.407	.580	.599	.633		
Tolerant		.468	.401		.448			.417			.424				.418	
Optimistic		.475	.437	.412	.424	.478	.511	.562		.480	.554	.465	.420	.476	.557	.655
Uncomplaining														.406		

above all : $p < .01$

하게 노인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노인 인식에 관한 9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대상자는 9개 문항인 '친절하다'(t=-2.010, $p < .05$), '믿을 수 있다'(t=-3.955, $p < .01$), '관대하다'(t=-3.556, $p < .01$), '우호적이다'(t=-3.298, $p < .01$), '건강하다'(t=-2.604, $p < .01$), '좋다'(t=-2.321, $p < .01$), '독립적이다'(t=-3.385, $p < .01$), '진보적이다'(t=-2.663, $p < .01$), '낙천적이다'(t=-2.716, $p < .05$) 모두에서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노인 인식을 보였다. 조부모 동거 유무는 노인 인식에 관한 6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부모와 동거중인 대상자는 모두 6개 문항인 '친절하다'(t=-2.161, $p < .05$), '적극적이다'(t=-2.087, $p < .05$), '독립적이다'(t=-3.013, $p < .01$), '진보적이다'(t=-2.078, $p < .05$), '매력적이다'(t=-2.289, $p < .05$), '낙천적이다'(t=-2.482, $p < .05$) 에서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더 긍정적인 노인인식을 보였다.

과거 조부모 동거 유무는 노인 인식에 관한 3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과거에 조부모와 동거한 대상자는 3개 문항 모두인 '현명하다'(t=-2.128, $P < .05$), '친절하다'(t=-2.223, $P < .05$), '낙천적이다'(t=-2.235, $P < .05$) 에서 더 긍정적인 노인인식을 보였다. 결혼 상태와 노인과의 긍정적 경험 유무는 각각 1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 상태에서는 '유식하다'(t=-2.843, $P < .01$) 문항에 유의하였으며 기혼자의 노인인식이 더 긍정적이었다. 노인과의 긍정적 경험자는 '현명하다'(t=-2.147, $P < .05$) 문항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타 대상자보다 긍정적인 노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대상자의 노인관련 과목 수강 여부는 문항별 노인 인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노인 인식에 관한 문항 간 상관관계

대상자들의 노인인식에 관한 문항 간 상관관계는 대부분 높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낙천적이다' 문항은 14개 문항과 높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655 \sim 0.412$), '매력이 있다' 문항은 11개 문항과 높은 순 상관관계($r=0.653 \sim 0.407$), '유통성 있다' 문항은 10개 문항과 높은 순 상관관계($r=0.633 \sim 0.445$), '좋음' 문항은 10개 문항과 높은 순 상관관계($r=0.588 \sim 0.446$)를 보였다.

문항 간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현명하다'와 '유식하다'($r=0.671$) 이었으며, '독립적이다'와 '진보적이다' ($r=0.659$), '참을성 있다'와 '낙천적이다'($r=0.6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약 10년 후 우리나라의 노령사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부양 부담문제와 세대 간의 갈등 및 오해의 문제 등 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대학생 중 노인관련 창업에 관심을 보인 대학생들의 노인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대학생들의 노인 인식을 향상시켜 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2.98 (7점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인식이 긍정적임) 로 긍정적이었으나 대부분의 문항이 중립의 범위에 근접해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중립적이면서 대부분의 문항이 긍정적 방향에 근접한 Ryu(2004)의 연구 결과보다 다소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외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중립적이었으며, 대부분의 문항은 부정적인 범위에 근접한 결과(Cha, 1980; Lee, 1989; Seo & Kim, 1999; Han, 2000; Lim, 2002; Yang et al., 2002; Cha, 2006; Kang, Jung, & Kim, 2009; Sanders et al., 1984; Hawkins, 1996; Marge, 2006)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결과는 대상자의 노인 인식이 선행 연구들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급격히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화에 대한 인식과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대중매체의 전달 영향에 의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노인인식이 타 연구 결과보다 높은 현상은 대상자의 특성이 노인관련 창업에 관심을 보인 집단이라는 점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노인인식의 차이가 현저하여 농촌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ee(2000)의 보고에서는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농촌 노인들은 연령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농사일 등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므로 도시 노인들보다 생산적인 존재로 인식한 영향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문항별 노인 인식(Table 2)에서 노인들을 '믿을 수 있다'(2.62)문항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 '불평이 없다'(3.45)문항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Han(2000)의 보고에서 3.45점, Kang 등(2009)의 연구에서 3.05점으로 동일하게 노인들이 '현명하다'(3.45, 3.05)문항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진보적이다'(5.36, 5.63) 문항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간 최대, 최소 점수 차가 0.83인 반면, 두 선행 연

구에서는 1.91, 2.58의 큰 점수 차를 보여 결과의 불일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대학생들의 노인 인식이 노화의 장단점을 포함하여 차츰 총괄적으로 되어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식 정도는 성별, 연령, 조부모와의 동거상태 및 과거 조부모와의 동거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성별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노인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ha(1980)와 Han(2000)의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고등학생의 노인인식에 관한 Cho(1987)의 연구에서도 남자 고등학생이 여고생 보다 노인에게 대하여 더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 군에 따른 노인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비교적 나이가 많은 대학생 집단인 23-25세, 26세 이상인 집단이 19-20세 집단이나 21-22세 집단보다 노인인식이 더 긍정적이었다. 특히 대상자 중 정원의 입학자의 경우 창업의 꿈을 지니고 진학한 경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노인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대학생의 연령 군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가 없어 본 연구 결과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았으나 정원 외 입학이나 만학 등 다양한 이유로 대학 재학생의 연령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분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조부모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군이 비동거군 보다 노인에게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Song(2004)의 보고와 일치하였으나 Lee(2000)의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동거여부가 대학생의 노인인식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지닌 노인과의 긍정적인 경험 유무는 노인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an(200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노인과의 의미있는 경험을 지녔거나 자신에게 의미있는 노인의 존재는 노인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에게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대화와 접촉 횟수가 많고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일수록 노인 인식이 긍정적(Mi Young, 2003; Seo & Kim, 1999; Bendict, 1999)인 결과를 보여 향후에는 노인인식에 관한 응답문항을 구체화하거나 직접 기술하는 방법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인관련 교과목의 수강 유무는 노인 인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James(1974)나 Lee와 Park(2002), Ryu(2004), Kang 등(2009)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노인에게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 인식이 긍정적인 결과나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각각 혹은 함께 연구 대상으로 한 결과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Cha, 2006; Lim, 2002; Song, 2004)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Bendict(1999)의 보고에서는 대학생의 노인에게 대한 지식이 노인에게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노인관련 이론 교과목과 노인간호 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 대상의 연구 보고에서도 간호학생의 노인에게 대한 지식이 노인에게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도리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Yoon & Han, 1999).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에서도 노인에게 대한 지식이 노인에게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rge, 2006) 이러한 이유는 간호학생의 노인간호학 교육내용에서 주로 노인의 신체적·생리적 측면을 다루고 있으므로 향후 노인의 심리적·가족 및 사회적 영역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Yang et al., 2002) 지적하고 있으며, 간호학생이 노인의 급성질환이나 돌봄 프로그램에 먼저 임하게 되어 정상적인 노인의 장점과 특징보다는 노인의 약점과 부정적인 측면에 먼저 접근한 데 기인한다고 제시하여(Devine, 2000) 간호학생의 노인관련 과목 개설 시 교과과정에서 노인의 장점과 독특성부터 시작하여 노인의 취약성과 질병문제들을 학습하도록 점진적으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 인식을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Table 4)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조부모 동거, 과거 조부모 동거, 결혼상태 및 노인과의 긍정적인 경험의 순으로 여러 문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 인식을 앞서 기술하였으나, 총 문항 중 몇 개 문항과 또한 어떤 문항과 유의한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노인 인식에 관한 18개 문항 중 11개 문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검증 결과 23-25세 집단은 나머지 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노인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의 노인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 분포에 관한 확인이 없었으므로 향후 대학생의 연령 간 노인 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은 노인 인식에 관한 18개 문항 중 9개 문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9개 문항 모두 노인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n(2000)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원인 중 젊음의 아름다움 상실감이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부모와의 동거 유무는 노인 인식에 관한 18개 문항 중 6개 문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조부모와의 동거 유무는 노인인식에 관한 18개 문항 중 3개 문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연령은 가장 여러 문항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성별, 조부모 동거 유무, 과거 조부모 동거 유무, 결혼상태, 노인과의 긍정적인 경험 유무 순으로 여러 문항과 유의하게 나타나 대상자들은 주로 노인을 친절하고 믿을 수 있으며, 현명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본 연구에서 노인 인식에 관한 한 문항과 타 문항 갯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낙천적이다' 문항은 14개 문항과 높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매력이 있다' 문항은 11개 문항과, '융통성이 있다'와 '좋다' 문항은 각각 10개 문항과 높은 순 상관관계를 보여 대상자의 노인 인식에서 노인의 낙천적이고 매력이 있으며 융통성이 있고 좋은 특징이 타 문항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문항 간 상관관계에서는 '현명하다'와 '유식하다'가 가장 높았으며, '독립적이다'와 '진보적이다', '참을성이 있다'와 '낙천적이다' 순으로 상관계수가 높아(Table 5) 대상자들은 유식한 노인일수록 현명하며, 진보적일수록 독립적이고, 낙천적일수록 참을성 있는 노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관련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의 노인 인식은 일반 대학생들보다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의 노인 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항별 노인 인식의 특성들을 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노인관련 과목과 노인간호 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들의 노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노인 인식의 특성들을 참조하여 긍정적이고 흥미있는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노인 창업에 관한 안내와 교육이 일반적이고 단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관련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의 노인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인식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을 파악하여 향후 대학생들의 노인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기위하여 시도되었다.

대학생들의 노인인식 정도는 문항 평균 2.98점 (7점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더 긍정적 평가, 3.5~4.5점 : 중립 범위)으로 긍정의 범위에 있었으며, 총 18개 문항 모두 긍정의 범위에 있었다. 그러나 문항 평균 점수와 문항 별 점수 분포 모두 중립의 범위에 근접해 있었다. 또한 노인인식에 관한 총 18개 문항에서 모두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노인들의 '믿을 수 있다'(M=2.62) 문항에 가장 긍

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친절하다', '좋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문항은 '불평이 없다'(M=3.45)이었으며 '적극적이다', '독립적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 조부모 동거 상태 및 과거 조부모 동거 유무는 노인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대한 Scheffe 검증 결과 연령 23~25세 집단과 26세 이상 집단은 19~20세 집단과 21~22세 집단보다 노인 인식이 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결혼 상태나 조부모 생존 유무, 노인과의 긍정적 경험 유무, 노인관련 과목 수강 여부는 노인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항 별 노인 인식은 성별, 연령, 조부모 동거 상태, 과거 조부모 동거 유무, 결혼 상태, 노인과의 긍정적 경험 유무 순으로 여러 문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학생들의 연령은 노인 인식에 관한 11개 문항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은 9개 문항에, 조부모 동거 상태는 6개 문항에, 과거 조부모 동거 유무는 3개 문항에, 결혼 상태와 노인과의 긍정적인 경험 유무는 각각 1개 문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들의 노인 인식에 관한 문항 간 상관관계에서 '낙천적이다'는 14개 문항과 높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매력이 있다'는 11개 문항과, '융통성 있다'와 '좋다'는 각각 10개 문항과 순 상관관계를 보여 대학생들은 노인들이 낙천적이고 매력이 있으며 융통성있고 좋은 느낌의 인식을 선호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식에 관한 문항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현명하다'와 '유식하다'(r=.671)였으며, '독립적이다'와 '진보적이다'(r=.659), '참을성 있다'와 '낙천적이다'(r=.65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관련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은 기존 연구의 일반 대학생들보다 노인 인식이 더 긍정적이었으며,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의 노인인식이 더 긍정적인 현상을 보였다. 또한 노인들의 낙천성과 융통성, 매력적인 특징과 좋은 느낌을 선호하여 친밀감 형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인관련 창업개발과 노인인식을 향상시키는 중재 개발에 참고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노인에 관한 교육내용 선정에 있어 기존에 치우쳤던 신체·생리적 영역 보다 노인의 심리적, 가족·사회적 영역에 관한 교육의 강화와 차후 연구를 제언한다.
2. 노인의 현명하고 긍정적인 삶의 경험을 젊은 세대의 요구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영역별, 전공별 맞춤형대의 멘토링 제

도 구축과 노인 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3. 대학생들이 노인관련 창업현장에 실제적으로 접근하여 미래의 창업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Bendict, S. M. (1999). *Factors affecting attitudes and the aging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arolina.
- Cha, T. E. (1988).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Jeonju University*, 9, 239-262.
- Cho, M. H. (1974). *An analysis of high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oi, K. A. (2006).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Devine, G. H. (2000). *The effects of caring for acutely ill elderly patient on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 Han, J. R. (2000).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3), 115-127.
- Hawkins, M. J. (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 *Educational Gerontology*, 22(3), 271-280.
- James, A. T., Lynda, W., & Karen, H. (1974). Attitudes toward aged as a function of age and education. *The Gerontologist*, 14(Aug), 316-318.
- Jang, K. S., Lee, M. H., Kim, I. S., Hong, Y. M., Ha, N. S., Kong, B. H., Shin, M. J., Kang, Y. S. (2009). *Ethics & Professional of Nursing*. Seoul: Hyunmoonsa.
- Kang, J. S., Jung, D. Y., & Kim Y. Y. (2009). Woman university students' supporting awarenes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3), 851-865.
- Kim, Y. J., Kang, I., & Lee, C. S. (2004). A study on attitudes toward older adult: comparative analysis of young, midwife, and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1), 65-75.
- Lee, H. M. (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I. S. (2000). Perception of rural area college students on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 123-135.
- Lee, S. J. (1989). *A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the aged of different age grou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Y. H., Kwon, M. K., Kim, N. S., Kim, H. W., Choi, M. K., Lee, K. E. & Hong, Y. M. (2003). A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the aged of university students. *Kuandong Medical Journal*, 7(1), 43-51.
- Lim, Y. S. (2002).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a general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Cwangju.
- Marge, L. (2006). Caring for the elderly: changing perceptions and attitudes. *Journal of Vascular Nursing*, 24(1), 22-26.
- Kim, M. (2003). The nurses' knowledge and perception of their role in genet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8), 1084-1092.
- Miko, M. (1987). College students and institutionalized elderly: attitudinal effects of interactive contact. *Gerontology & Geriatric Education*, 6, 37-42.
- National Statistics Office Republic of Korea. (2006).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Seoul.
- Ryu, H. S. (2004). *College students' knowledge about aging and their attitudes toward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 F.,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Seo, B. S., & Kim, S. H. (1999). A study on the elderly imag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9(2), 97-111.
- Song, E. J. (2003). *Nurses and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Traxler, A. J. (1980). Let's get gerontologized: developing a sensitivity to aging. *The multi-purpose senior center concept: a training manual for practitioners working with the aging*. Springfield, IL: Illinois Department of Aging.
- Uhlenberg, P., & Hammill, B. (1998). Frequency of grandparent contact with grandchild sets: six factors that make a difference. *Gerontologist*, 38, 276-285.
- Yang, K. M., Oh, H. E., Kim, J. S., & Bak, Y. J. (2002).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27(1), 1-10.
- Yi, Y. S., & Park, K. R. (2002). Effects of on undergraduate gerontology course of the students' attitudes about older adults: a quasi-experimen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1(3), 29-41.
- Yoon, H. S., & Han, H. K. (1999). Effect of clinical experiment at a nursing hom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2), 255-262.